

목 차

■ 국내 정보 통신 정책 방향과 과제

Executive Summary	1
1. 한국 IT 인프라의 국제적 위상	2
2.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IT 산업의 비중	4
3. 정보통신부의 IT 산업 정책 방향	5
< 토론 >	10
■ HRI 경제 지표	21

국내 정보 통신 정책 방향과 과제

□ 한국 IT 인프라의 국제적 위상

- 한국의 1994~2005년 기간 동안 인터넷 이용자수 평균 증가율은 약 72%로 세계 평균 증가율 42%를 크게 상회함
- 같은 기간 한국의 이동전화 가입자 증가율도 한국이 44%로 세계 평균치인 41%를 능가함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한 정보화 기회 지수 평가에서 한국은 2년 연속 1위를 차지함

□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IT 산업의 비중

- 2005년 국내 IT 생산액은 233조 원이며,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IT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00년 9.5%에서 2005년 15%로 급증
- 지난 10여년간 IT 부문의 평균 성장률은 19%로, 같은 기간 GDP(국내총생산) 증가율 8%보다 2배 빠른 성장세를 나타냄
- 2005년 경제성장률 4.0%중 IT 산업의 기여도는 1.9%p에 달함

□ 정보통신부의 IT 산업 정책 방향

- 정보통신부의 정책 비전 : 정보 통신 1등 국가를 통한 선진 한국 달성
 - 이러한 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IT 부문내 8대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성장동력 육성을 의미하는 IT839 전략을 추진중임
- 적극적인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시행 : 정보화의 역기능인 개인 정보 유출을 막지 않을 경우 우리가 지향하는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진입이 불가능. 현재 국회에 개인 정보 보호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음
- 통신 방송 융합 추진 : 컨버전스 시대에 맞추어 통신과 방송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통신 방송 융합을 촉진시킬 계획임

국내 정보 통신 정책 방향과 과제

- 출처 : 한경미래니엄포럼
- 일시 : 2006년 9월 26일
- 연사 :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 주최 : 한국경제신문,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제 발표

1. 한국 IT 인프라의 국제적 위상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에 와서 제가 평소에 잘 못 뵈던 선배님들도 여러 분 뵈게 되어서 오늘 아침에 좋은 기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자료를 그냥 봐 주시면 맨 앞에 영국 BBC 뉴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영국 BBC방송이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에 걸쳐서 6시 뉴스에, 뉴스 프로그램에 스페셜 리포트로 해서 한국의 IT에 관해서 3일 동안 10분 정도로 방영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보는, 또는 BBC를 통해서 세계에 알려지는 한국의 IT 현황, 우리는 당연하게 느끼고 아무런 게 없는 것이 외국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놀라운 것으로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 지하철 속에서 핸드폰을 통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계적으로 지하철 속에서 핸드폰이 되는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핸드폰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지금은 약간의 시범 서비스나 상용 서비스로 하지만 이 방송이 방영되던 그 시점, 지난 5월에는 세계에서 휴대폰으로 텔레비전을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움직이면서 초고속 인터넷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고속 인터넷

의 보급도 얼마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움직이면서 초고속 인터넷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한국은 미래를 만들고 있는 나라다라는 소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5월에 방송이 되고 제가 6월에 영국에 갔었는데 그곳 대사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BBC 방송에서 3분씩 3일 한 것이 외교 활동 1년 한 것 보다 성과가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보시면, 통상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속에 살고 있느냐. 제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약 11년 했었는데 사실 이 자리를 처음 만들 때는 저희가 94년에 정보통신부가 생겼습니다. 94년 12월에 정보통신부가 만들어졌고 2004년 12월까지 10년이 됐던 해입니다. 그래서 그 10년을 평가하는 그런 의미에서 처음 이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94년이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에서도 인터넷 상용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해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일반 대중에서 처음 나타났던 것, 또 WTO체제가 출범한 해이고 한국에서는 정보통신부가 만들어졌던 해입니다. 지난 10년간 세계를 바꾼 가장 큰 원동력은 세계화와 정보화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 세계화를 대표하는 게 WTO체제의 출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를 대표하는 것이 인터넷의 확산입니다. 어느 누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빠르게 인터넷이 확산했습니다. 정보화 쪽에서, 우리 산업 쪽에서 보면 정보화 물결을 주도한 두 곳은 그림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과 휴대전화라고 봅니다. 표시를 보시면 약 11년 동안 평균 증가율이 인터넷 같은 경우는 한국인 경우 72% 세계도 약 42%, 이동전화는 한국이 44% 세계가 41% 이 두 가지를 다 보시면 인터넷이든 휴대전화든 이렇게 빠르게 확산이 되고 증가한 것은 없었다고 봅니다. 특히 휴대전화는 우리나라 세계나 비슷한 증가를 보였지만 특히 빠르게 인터넷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확산이 됐습니다. 뒤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렇게 정보화의 물결, 변화의 외중 속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우리의 살 길을 찾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뒤편을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ITU라고 유엔에 정보통신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이 2년 연속 정보와 기회 지수평가에서 1위를 했다는 보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2.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IT 산업의 비중

6쪽을 보시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속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와 있는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IT 생산을 보면 지난 해 233조 정도 됩니다. 지난 11년 동안 IT 산업의 평균 성장률은 19%가 되고 GDP평균 성장률은 명목으로 봤을 때 약 8%입니다. 그러면 두 배 반 정도 빠른 속도로 IT산업이 성장을 했습니다. 즉,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의 역할을 지난 10여년동안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전체 경제보다 빠르게 성장을 해서 IT부가가치 실질 개념인데 전체 경제에서의 IT부가가치 비중을 보면 2000년도에 9.5%에서 지난해 15%가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은 IT 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와중에서 소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우리가 지난해 실질로 4% 성장을 했는데 이중에서 IT 산업이 기여한 부분이 1.9%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은행이 매년 3월에 발표하는 국민계정 발표를 하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47% 정도 성장의 기여를 IT 산업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의 평균을 보면 약 38% 정도를 IT 산업이 우리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쪽을 보시면, 10년간의 전체적인 세계와 우리나라의 IT 산업 모습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간단히 보시면 2000년의 IT 버블이 붕괴하면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2003년을 기준으로 다시 IT산업이 재조준기를 거쳐서 성장의 단계로 가고 있다는 것과 국내적으로 보면 아직 IT산업이 충분히 조준기를 거쳐서 재성장의 단계를 준비하는,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이 그림에서 가장 큰 메시지를 생각할 때는 저희는 IT산업이 재성장을 해서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2만불을 넘어서 3만불에 도전하려면 성장동력으로써의 어떤 혁신과 유인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던 그림입니다.

9쪽을 보시면 한국사회의 디지털 트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고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개인 모든 영역에서 이제는 IT가 그냥 생활의 통신사 광고 카피처럼 생활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을 빼고, 예를 들어 휴대 전화를 우리한테서 뺏어가고 인터넷을 뺏고 나머지 생활을 하라고 하면 생활이 안 되는 그러한 단계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변화가 IT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정보통신부의 IT 산업 정책 방향

10쪽을 보시면 우리 정보통신부의 IT 정책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보통신 1등 국가를 통해서 선진 한국을 달성하자 라는 것이 정보통신부의 정책 비전이 되겠습니다. 11쪽을 보시면 금년도 정책 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산업 쪽에서 수출 쪽에서 보면 지난달부터 IT산업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IT산업은 크게 상반기 하반기로 보면 수출의 비중이 하반기에 10% 이상 더 많습니다. 구조상 크리스마스가 있고 부활절이 있고 과거부터 PC나 휴대폰이 주로 하반기 쪽에 시장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 20일까지의 수출실적을 점검해 보니까 9월달에 약 24%가 전년 동월 대비 늘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수출이 상반기에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궤도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IT 부분이 아직까지 월별 실적으로 100억불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9월에 잘하면 100억불이 최초로 넘는 그러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쪽으로 가면, 소위 말하면 유비쿼터스 사회로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등 정보화 역기능입니다. 이게 개인 정보 보호가 충분히 되지 않으면 유비쿼터스 사회로 갈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이슈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통신시장 여건은 이제는 거의 기존 서비스에서는 시장이 포화되어서 성장세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4% 내외 정도 성장하는 것이고 사업자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서비스를 통한 활력을 넣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방융합이 아주 핫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통신부의 5대 정책 목표입니다. 저희는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고 IT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통방 서비스를 보도하고, 세계적인 IT협력을 강화하고, 저희가 우정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사랑을 받는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정책 목표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옆에 적어보았습니다. 그냥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14쪽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 했을 때 저희는 지속적으로 IT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IT839전략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T839전략이라는 것은 IT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현재의 반도체나 휴대폰 또는 디스플레이와 같은 우리 IT산업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성장의 먹거리를 찾아내서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대 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각각 어떤 것은 씨앗이 되고 어떤 것은 묘목이 되고 어떤 것은 조금 더 큰 나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4년부터 신성장 IT 839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약 234개의 기술개발 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료된 것이 68개 정도 되고 현재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18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시작하기 전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산하연예인은 500명의 전문가들에게 델파이를 통해 가지고 839를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의 기술 측면에서 기술 격차가 각각 어느 정도 미국과 접근했는가를 따져봤습니다. 조사 결과 2003년 12월에는 미국과 우리가 9대 성장 동력 품목 중에서 평균적으로 약 2.6년, 2년 반 조금 넘는 기술 격차가 있다고 조사가 됐었는데 금년 상반기에 조사했을 때 이것이 1.6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약 1년 정도의 기술 격차를 따라잡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중에서 특히 차세대 이동통신 그런 것은 기술 격차가 1년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가장 많이 기술 격차가 줄어든 것은 한 2년 좀 넘게 2.4년 정도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2년 이상의 기술 격차가 있는 부분은 소프트웨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그런 부분은 많은 기술 격차를 줄이기는 했지만 아직도 2년 이상의 기술 격차가 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839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와이브로 라든가 DMB 라든가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금년에 상용화가 됐습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IT부분이 다른 부분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출지향형 경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지난 30년 동안 열심히 경제를 발전시켜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출을 하고 세계적인 수출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IT쪽으로 오면서 최초로 소위 하이엔드 제품 속에서 최고 수준의 고가 제품의 시장을 석권한 것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동차를 많이 수출했지만 우리의 휴대폰 같은 건 자동차로 치면 벤츠나 BMW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와이브로 같은 것을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러한 IT에서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의 표준을 우리가 수용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초로 우리의 기술 표준을 세계에 제안해서 이것이 세계 표준으로, 세계 어디에서 보다 우리가 IPR을 상당부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최초의 것이 됩니다.

휴대 전화를 얘기를 할 때 항상 퀄컴 얘기가 나옵니다. CDMA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했지만 기술료를 지급하고 퀄컴칩을 사오고 항상 걱정하시는 분들이 국산 화율이 몇%나 되느냐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와이브로 쪽으로 가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저희가 퀄컴 칩을 사용하지 않고 최소한 기술료를 지불하지 않고 크로스 라이선싱을 통해서 기술료 부담 없이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소프트웨어 기술 쪽으로도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요새 여러분들이 보시는 한반도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컴퓨터 그래픽스의 상당 부분이 우리 ETRI에서 개발한 소위 실사 수준의 디지털 액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한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방송융합, 방송통신 융합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까지는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각각의 다른

규제체계를 가지고 했지만 이제 디지털화되고 광대역화 되고 이런 컨버전스 시대로 오면서 규제 기구가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통신방송이라는 것이 이제 대상이 되는 현상의 융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원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앞으로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와야 되고 경제를 이끌어 가고 고용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세 번째는 그러면서도 항상 방송의 여론 형성 기능 이라든가 공익적 기능 또는 사회 문화의 미치는 영향력 또 우리 문화의 다원성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전통적인 통신이라고 하면 그냥 음성전화를 생각하게 되고 전통적인 방송이라고 하면 그냥 지상파 TV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이 나왔을 때 음성 전화와는 너무나 다른 현상이 우리에게 있어온 것이고 아날로그 시대에서도 이미 케이블 방송이 나왔을 때는 전통적인 지상파 방송과는 굉장히 다른 현상이 이미 우리가 현재도 과거에도 경험을 해 왔습니다.

현재 국무총리실에 방송통신 융합 추진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번 회의 때까지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금년도 정기국회의 통합 규제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낼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IP-TV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 역시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다음에 세 번째가 방송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서 그것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법률안을 낸다라는 세 가지가 우선적인 과제 목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5쪽을 보시면 나머지는 다 제가 839페이지할 때 말씀드린 것이고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유비쿼터스 사회 구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지난 3년 동안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친 결과 현재는 인터넷 실명제로 출발을 했지만 이제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실명이 아니더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가명도 좋고 필명을 사용해도 좋고 아이디를 사

용해도 좋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그 책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나중에 사후적으로 누구의 글이라는 것은 밝힐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포털이나 인터넷 미디어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우리의 인터넷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포털에 한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포털에 한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인 정보 보호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처리가 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 끝에 보시면 로봇 얘기가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예전에 영화를 종합예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로봇은 첨단 IT 기술의 종합예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년 전에 정보통신부가 로봇을 9대 성장 동력에 했더니 제가 기획관리실장일 때 인데 업무 보고를 하고 와서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니까 정보통신부가 왜 로봇을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로봇을 보시면 왜 정보통신부가 하는 지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첨단 IT의 종합제품이다 모든 기술이 융합이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파생적인 기술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과거에 우리가 미국의 우주선을 만듬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많은 상용기술이 파생이 되듯이 거꾸로 보면 로봇이라는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기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이렇게 이슈로 잡음으로써 대표적으로 이 부분에 기술격차를 많이 줄이는 사례가 됩니다. 가끔 제가 라스베가스나 가전 전시회나 세계적인 전시회에 가 보면 로봇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사와 시장에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 보다, 2-3년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여러분들도 금년 말쯤이 되면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100만원대 로봇의 여러 가지 모형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론

(송혜자 여성벤처협회장) 그 동안 IT 정책과 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정부의 역할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정통부가 5대 정책의 목표를 갖고 해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프라 부분에서는 다양한 인프라 기반 구축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정부의 개인 정보 보호의 고도화라는 부분을 싸서 열심히 잘 해 주셨는데 사실 국민들은 우리 나라인프라가 얼마나 잘 됐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느낌은 없습니다. 고속도로가 깔렸는지 이걸로 인해 내 차가 얼마나 잘 빠지고 있는지를 더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인프라 내에서 얼마나 국민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인프라 투자를 하실 때 10이라면 3 정도는 같이 모델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인프라가 좋아졌다라는 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삶에 질과 연결이 되는 그런 모델을 좀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통신 방송 융합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IT분야를 보면 저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있지만 이미 소프트웨어 산업은 훨씬 오래 전부터 개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살아남기 어렵게 되어 있고 우리 시장 내에서도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오라클이나 마이크로 소프트는 훨씬 몇 십년 전부터 우리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 시장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장이 되는 통방 관련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통방에 대한 얘기가 1년 전부터 나온 것 같은데 해결이 되지 않아 통방에 관련된 많은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한미 FTA에서는 미국에서는 계속 한국의 통신방송 시장을 개방하라고 합니다. 이 시장을 개방해서 미국에서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IT가 성장 동력이고 누구나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느 소비자에게 들었는데 가장 사용해 보고 싶은 품목은 남성은 와이프로 여성은 가정용 로봇이라고 합니다. 또 IT 839전략에 대해서 84%가 경제 성장과 국가 이미지를 많은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품목이 보급화 되면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겠다는 유저층도 75%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산업이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려면 공급과 수요에 맞게 시장에 맞게 인재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저희 산업에서는 사실 항상 인력 인재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머리를 갖고, 또는 지식 산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저희 회사에서도 인도에 있는 개발자를 데려다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에 그동안 많은 국가의 재정을 인력 육성 사업에 써 왔지만 그래도 시장과 교육 환경과의 갭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와서 웹 해지게 만드는 나는 엔지니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또 학교에서 품질에 대한, 소프트웨어도 패치를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지 이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있어서 큰 사고가 나서, 여러분들도 아마 서울시의 교통카드가 잘못되어서 하루에 5억이 손해가 났던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품질에 대한 불감증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이 대학 때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되어야 되지 않을까 빌게이츠나 세계적인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꼬마 때부터 컴퓨터를 가지고 놀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때부터 정보화 교육이나 산업 여건의 교육 커리큘럼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때부터 내려서 웹 해지가 아닌 아이고니즘을 아는 좀 더 재미있게 하면 우리가 우려하는 정보화의 역기능의 게임이나 오락성에 빠지는 것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 먹거리인 IT 산업에 적어도 인재확보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라고 봅니다. 그 동안 839 정책과 IT 인프라 고도화에 일관적인 정책을 해 주신 것, 또 앞으로도 그런 일관적인 정책이 IT 분야에서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첫 번째로 말씀하신 서비스 모델 개발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839 전략을 했던 것도, 성장 동맹국을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시키라고 하면 그 앞단에 있던 서비스가 먼저 활성화되고 인슈어터한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홈네트워크라든가 BCN 이라든가 또는 RFID를 활용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유센스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드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람들과 거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이해 관계자, 중요한 플레이어들이 함께 모여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저희가 모든 부분이 경쟁보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IT는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등이 잘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IT 산업입니다. FT관련해서는 IT 부분이 일찍부터 개방이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속성상 많이 되어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제품이나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서의 문제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통신방송 서비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신 서비스에 관해서는 현재 가장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통신 사업자에 대한 지분제한, 또 우리 표준이나 이런 데에 대한 기술 중립성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새로운 서비스,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뒤에부터 말씀드리면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포괄적인 미래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더 가시화 됐을 때를 대비하고 있고 지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의 지분 구조를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 KT 나 SKT같이 지배적 사업자를 49%까지 개방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외국인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지분을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충분한 우리 필요에 의한 시장 개방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미국인 경우에는 무선국을 포함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분 제한이 20%로 직접 투자가 20%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선 49%까지 미국도 완화가 되어야 그 다음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중립성 부분은 저희가 정부의 정당한 정책적 필요, 예를 들면 주파수 자원 관리라든가 상호 호환이라든가 이런 범위 내에서 기술적 중립성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자간 협상이라든가 미국이 다른 싱가포르나 그런 나라와 FTA를 맺은 부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 양성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IT 부분에서 인력 양서를 할 때 소위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 또 하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인력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프트웨어 업계 간담회를 하는데 송 대표님도 오셨던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나 했더니 우수 인력이 안 오고 소프트웨어 인력이 3D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그 산업이 잘 되려면 우선 소프트웨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어야 됩니다. 거기가 잘 되어야 좋은 사람이, 봉급을 더 많이 줄 수 있고 좋은 사람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그러한 것을 소프트웨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제 값을 받을 수 없게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좀 더 체계적인, 또는 중/고등학교 등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동감입니다. 하나 어려운 것은 우리 교육 과정의 특성상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5년 전부터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해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다른 얘기지만 저희의 고민은 또 다른 데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날이 갈수록 어린 나이에 인터넷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세 살부터도 인터넷을 사용하는 유아가 전체의 50%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맞느냐 라고 물어볼 정도입니다. 정보통신부 장관이 가서 정책을 발표하는데 1주일에 하루는 인터넷을 쓰지 않는 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또는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콘텐츠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아주 밀접한 교류를 해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관된 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하고 나서 한 것이 특히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기존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제거를 물론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이지지만 정부의 범위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IT산업의 밝은 면만 말씀하셨는데 역기능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IT산업과 비IT산업의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이런 것들이 IT 산업 비중이 커짐에 따라서 나타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통 주도 산업에 비해서 IT 산업은 전후방 산업보다 낮은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종합적으로 대처하느냐 이런 방면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컨대 우리 노트북 같은 경우 부품의 60%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핸드폰 같은 경우 부품의 40%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방 산업 효과가 취약한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그래서 고용효과도 전통 주력 산업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완책 같은 걸 정책을 입안하면서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음성 통신 요금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고시가 되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많이 쓰는 데이터 통신요금이나 무선 인터넷 요금은 사전에 고시가 안 되고 상당히 값비싼 걸로 학생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렴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시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에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노중 SK경영경제연구소 고문)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06년도 정책 여건을 볼 경우에는 통신 분야에서는 아마 국내 시장이 포화되고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업자간의 경쟁도 심화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시장을 개척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이 포화될 경우에는 이 통신 시장도 해외에 진출해야 하는데 통신 시장의 성격상 이게 국가 인프라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접속하는 채널이 한정되어 있고 이게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채널로써 시장을 개척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협력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면에서 장관님은 어떤 좋은 방안을 갖고 계신지 복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송대회 감사원 평가연구원장)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개발 연대의 산업 정책적 스타일이 더 이상 표명되지 않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통부나 산자부를 보면 정부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서 수출이 일어나고 그것이 국가 발전을 가지고 온다라는 패러다임이 WTO체제에서도 그렇고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보조금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수출이 막히고 그랬는데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야 하지만 이걸 공공연히 대외에 자랑스럽게 정부가 이렇게 육성해서 산업이 컸고 이 산업이 국제 시장을 장악한다든지 세계를 석권한다든지 이런 스타일의 개발 연대적 정책 스타일들은 새로운 역할분담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에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과 신문에 정통부에 업무 정책 이런 것이 전부 파이낸셜 타임지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맞는 정책 패키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나중에 WTO 소송이라든지 그런 분쟁에 말리지 않는 글로벌적인 시각에서 국내 정책을 일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 두 번째는 IT 정책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정책에 기본 통계가 상당히 미흡한 걸 여러 사람들이 지적합니다. 좀 전에도 3세 50%가 인터넷을 쓴다 또 IT인력이 20만이다 40만이다 이런 여러 가지 기초 통계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역할인데 이런 쪽으로 앞으로 우리가 복지도 그렇고 돈 들어갈 것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장애자가 몇 명이며 또 그 장애자가 중증인지 경증인지 또 IT 분야에서도 무조건 IT 분야에 있다고 해서 IT인력이 아니고 그것도 여러 가지 세분화해서 어떤 분야의 인력이 부족하고 어떤 분야의 인력이 넘치고 앞으로 교육정책에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되는지 기본적인 통계베이스가 우리나라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재정 규모도 커지고 그렇고 그런 기초통계 쪽에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자 여성벤처협회장) 정보통신부가 최근에 새로 캐치플레이트를 IT 강국에서 소프트강국으로 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당초 839에는 소프트웨어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소프트웨어를 인프라 스트럭처에 끼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진흥과로 되어 있던 걸 '국'으로 한 차원 높여 주셨고, 더군다나 오늘도 이 행사를 하시면서 같이 동행하신 분도 소프트 사업 단장님만 오신 걸 봐서 그만큼 힘을 실어주신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들어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얼마전 신문에 기사가 나기를 코스닥에 나 있는 중견 소프트웨어사들이 업종을 바꾸고 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업종을 바꾸고 있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어느 사업이든 양극화는 다 있지만 적어도 이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써 말씀을 드리자면 투정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IT 강국을 표방하면서 가고 있는 인도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인도는 내수 규모가 24억불이라고 합니다. 2004년도 통계인데 이 통계는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내수가 24억불인데 수출은 172억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같은 시기에 수출은 2.1억불입니다. 그리고 내수가 162억불입니다. 여기에서 확인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소위 대기업들이, 국내에 있는 많은 대기업들이 다 우리 한국 안에서 놀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지 않고 놀기 때문에 중견 또는 벤처기업들과 같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대기업과의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중소 벤처에서는 전부다 고객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지만 대기업은 거기에서 얻어지는 고수익의 프로젝트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밸런스가 맞추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공공프로젝트가 중견 벤처와 경쟁했을 때는 오히려 그것들이 금액이 쌀 수도 있고 더 높은 경쟁력을 달리 호도할 수 있는 경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국내에 있는 벤처 회사가 힘을 키워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처음부터 씨를 말리는 구조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상에서는 국내 벤처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강국이 정말 진정하게 표현될 수 있는가 그만큼 힘을 키울 수 있는지 우려스럽고 이참에 만약 일반 기업 같은 경우 장관님이 CEO이시고 우리 박정우 단장님이 사업 본부장님이라고 하면 목표를 주는 것입니다. 수출 1억불 밖에 되지 않는 걸 1년 내에 100억불 해라라는 목표를 정해 주시고 대신에 거기에 말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금 재원 힘 모든 걸 다 실어주셔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IT 강국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양극화 말씀을 주셨고 전후방 산업 연간 효과가 작다고 하셨는데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제조와 비교하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인도 장관이 와서 저와 얘기를 하는 중에 자기네들은 고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고용이 중요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우리도 고용이 중요하고 미국도 고용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제조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 중에 어떤 걸 얘기하느냐 했더니 평판 디스플레이, PDP나 LCD, 그걸 해 가지고는 고용이 해결이 안 될 것이다 그건 사람 몇 명 쓰지도 않는다. 시가 총액과 고용을 비교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Google)하고 제너럴 모터스나 제너럴 일렉트릭과 예를 들어 시가총액과 고용을 비교하면 몇십배 차이가 납니다. 그건 본질적인 특성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동차 사업이 살아나려면 IT와 결합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가격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IT이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으면 고용은 더 줄입니다. 모수 자체가 전체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IT와의 결합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조운정 회장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을 통해서 고용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품 국산화율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똑같은 핸드폰이라도 초기 출시 제품이나 또는 시장에서 얼마나 팔렸느냐에 따라서 부품 국산화율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외산 부품이 40%, 국산 부품이 60%다 그러면

저희가 통상 평균적으로 얘기할 때는 68%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기종에 따라서는 85% 이상 올라가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경쟁을 하는 데에 과거처럼 예를 들어 100% 국산, 90% 국산 이러면 안 팔립니다. 값이 비싸서. 지금 휴대폰 제조업체들의 가장 큰 고민이 그래도 우리는 가급적이면 국산화로 가고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국산화를 최대한 넓혀 가려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격 경쟁력과 직결이 되고 점점 더 휴대폰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핵심부품, 또는 고가 부품의 밸류 체인으로 내려오면서 그런 부분을 국산화하고 우리가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요금은 저희가 대책도 추가로 발표할 것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 요금제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 요금제로 가입하면 요금이 더 낮은 수준에서 한정이 되는 고정이 되는 상품을 많이 현재 내 놓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정통부 장관이 1주일에 인터넷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떤 요금제가 꼭 있으니까 하십시오라고 쫓아다니면서 알려드리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통신 시장 둔화 해외 진출은 명백한 방향이고 우리 통신 사업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중국의 국가 계획 발전 주임이 왔을 때 제가 가서 얘기도 하고 제가 해외에도 외국 정통부 장관과 협의할 때 이게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가 일어나기 전에 세계적으로 보면 통신 사업의 경쟁과 소위 일레브로와이제이션을 하면서 경쟁을 도입하고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생긴 돈으로 많은 세계적인 통신 회사들의 해외 진출을 많이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즈음해서 우리도 해외 진출을 좀 했었는데 IMF과 나면서 그걸 다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 시장의 선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현재는 잘 아시는 보다 폰이라든가 프랑스 텔레콤이나 도이치 텔레콤 이런 회사들이 거의 모든 나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대통령님

수행을 하고 간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프랑스 텔레콤이 일사업자를 하고 있고 그 옆에 헝가리 같은 나라는 도이치 텔레콤이 일사업자를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의 틈새시장과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큰 중요한 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잊지 않고 그것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개발 연대의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습니다. 통한다고 생각을 하면 정신 나간 짓이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결과가 말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IT 839 얘기를 할 때 또는 그 이전에 2003년에 신성장 동력을 할 때도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슈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범무법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 홍보 자료나 이런 것 다 감수를 받고 기본적으로 상계 보조금, 또는 금치 보조금이 될 수 있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는 분들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부의 역할이 작지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 IT 839에서는 강조를 하고 바입니다. 그것이 크기가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외연의 범위는 끊임없이 줄어가고 줄 수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와이브로나 새로운 서비스를 할 때 주과수를 분배를 언제하고 어떤 대역에서 어떻게 하고 그런 건 천하 없는 미국이나 어느 나라라 할지라도 그것은 정부가 하는 역할입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빠르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라는 것이 정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통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통계청이 있고 또 참여정부에서도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계청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인 통계에 대한 재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상당부분 진전되어 왔습니다. IT 부분에 국한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IT라는 것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이라는 게 94년도에 생겨났고 모든 것이 기존의 통계 체제나 그런 것에 대한 변화와 예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 협력하거나 모든 부분에서의 국제적인 통일적인 기준조차도 적립해 나가기 어려운, OECD를 통해서 끊임없이 거기도 연구반이 마련되어 있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살아서 무지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정비를 하고 주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하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소프트웨어 콘텐츠 일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출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 우리의 반도체나 휴대폰과 같은 그러한 성공을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가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글로벌화 되고 그래야 소프트웨어는 수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현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세탁기 자동차 휴대폰을 판다 할 때 설명서 넣어서 팔면 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SI를 수출한다고 하면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영화를 판다 아주 제일 먼저 쉽게 걸리는데 말부터 안통해서 SI의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원활하게 맞춰준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장벽을 넘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문화의 장벽을 넘어야 수출이 가능한 게 이쪽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더라도 어느 것이 되느냐 하면 어린이 대상 만화나 온라인 게임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문화적인 장벽이 좀 더 낮은 카테고리 속하는 것들입니다. 어린이들은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게 많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것이 글로벌화 되고 수출하기 좋고 온라인 게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뭘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와 합쳐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야 우리가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하려고 하면 그런 조건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집중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HRI**

정리 및 교열

주원 연구위원 (juwon@hri.co.kr) ☎ 02-3669-4030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2001	2002	2003	2004	2005(P)	2006(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3.8	7.0	3.1	4.7	4.0	4.5
	최종소비지출 (%)	4.9	7.6	-0.3	0.4	3.4	4.0
	민간소비 (%)	4.9	7.9	-1.2	-0.3	3.2	4.0
	총고정자본형성 (%)	-0.2	6.6	4.0	2.1	2.3	3.4
	건설투자 (%)	6.0	5.3	7.9	1.1	0.4	0.5
	설비투자 (%)	-9.0	7.5	-1.2	3.8	5.1	6.4
대 외 거 래 기 준	경상수지 (억 \$)	80	54	119	282	166	10
	통 관 기 준						
	무역수지 (억 \$)	93	103	150	294	232	120
	수출 (억 \$)	1,504	1,625	1,938	2,538	2,844	3,140
	증가율 (%)	(-12.7)	(8.0)	(19.3)	(31.0)	(12.0)	(10.4)
	수입 (억 \$)	1,411	1,521	1,788	2,245	2,612	3,020
증가율 (%)	(-12.1)	(7.8)	(17.6)	(25.5)	(16.4)	(15.6)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4.1	2.7	3.6	3.6	2.7	2.8
	실업률 (%)	3.8	3.1	3.4	3.7	3.7	3.5
금 융	원/\$ 환율 (평균, 원)	1,291	1,253	1,192	1,145	1,024	960
	국고채금리 (평균, %)	5.7	5.8	4.6	4.1	4.3	4.6